

“등에 골이 패이는 특성있는 종돈개량에 역점 둘터”

『88우수농장상』수상한 우봉권 사장



『내년부터 돼지 도체등급제가 시행되면 육질이 좋은 우리 농장의 종돈들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6월 1일 대한양돈협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로부터 88년도 우수 종돈장으로 선정돼 전동용 회장으로 부터 「'88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우석종돈장 우봉권 사장의 말이다.

지난 87년 9월 10일 제일농장 음성육가공공장에서 대한양돈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최초의 육돈평가대회에서 거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깝게 최우수가 아닌 「우수상」

에 머물고, 이번에도 종합점수 1, 101.2를 얻어 1점 차이로 「최우수농장상」의 명예를 놓치고 「우수농장상」에 머문 우석종돈장.

우봉권 사장은 「우리 농장이 큰 상복은 없나 보다」며 안타까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전국에 분포한 178개의 종돈장중 두번째의 서열을 받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72년 돼지 2마리로 양돈을 시작, 부산 동원산업 등에 비육돈을 출하하면서 육질의 중요성을 깨달아 85년부터 종돈장을 운영하면서 종돈개량을 통한 육질개선에 힘써 왔다

는 우봉권 사장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도체등급제가 시행되면 틀림없이 우석종돈장의 종돈들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며 육질에 관한한 자신만만해 했다.

평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하며 유전자사업인 종돈개량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우봉권 사장은 『능력이 좋은 돼지의 새끼는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고 강조한다.

작년 6월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개최된 World Pork Expo에서 국제경매를 통해 햄프셔 챔피언을 6,750달러에 낙찰받아 화제를 모았던 우봉권 사장은 『앞으로도 최고능력의 돼지를 소수 정예로 도입하여 등에 골이 팽 정도로 등지방이 얇고, 햄이 충실하며, 정육율이 많은 육질 좋은 돼지를 개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봉권 사장은 『현재도 우리 농장의 종돈능력이 국제수준에 안떨어지지만 앞으로 개량에 박차를 가해 세계적인 전문종돈장으로 가꾸고 청정돈군을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담 : 김동성>